

종이 한 장으로 빛은 도자기 예술

전주한지박물관, 8월 29일까지 '도자기를 사랑한 종이' 기획초대전 개최

전주페이퍼가 운영하는 전주한지박물관이 여름 기획초대전 '도자기를 사랑한 종이'를 열고 종이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29일까지 전주한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종이 한 장만으로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구현해 온 이미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이미지 작가는 1980년대부터 종이접기를 통해 향이리와 매병, 주병 등 우리 전통 도자기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온 종이조형 작가다. 작품은 종이 한 장을 자르지 않고 반복해서 접은 뒤 양 끝을 연결해 입체적인 도자기 형태를 완성하는 독창적인 기법으로 제작돼 종이 지닌 무한한 조형성과 예술성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종이를 접어 전시장 벽면을 함께 완성하는 시민 참여형 체험공간도 운영된다. 단순한 감상을 넘어 창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종이예술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국내 대표 제지기업인 전주페이퍼가 운영하는 전주한지박물관은 1990년대부터 전통 한지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다양한 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대표 문화공



전주페이퍼가 운영하는 전주한지박물관이 여름 기획초대전 '도자기를 사랑한 종이'를 개최한다.

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전시는 전주한지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한다.

/오상근 기자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 영화제 공모

군산시, 영화·드라마 촬영지 활용 영상 8월 7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지역의 매력을 영상 콘텐츠로 재조명하기 위해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랜 시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사랑받아 온 군산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낸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군산의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영상'이다. 참가자는 군산의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배경으로 한 1~3분 분량의 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최근 영상 제작 환경과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해 일반 부문과 AI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일반 부문은 참가자가 직접 촬영·편집한 영상을, AI 부문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상의 주요 시각·청

각 요소를 제작한 영상을 대상으로 하며, 두 부문은 각각 별도로 심사한다.

참가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7일 오후 6시까지다. 참가자는 구글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작품성, 기술성, 주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4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400만 원 상당의 군산 사랑상품권과 트로피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8월 29일 개최되는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에서 진행된다. /군산=김민호 기자

임실군, 필봉농악 '춤추는 상쇠-만남' 상설공연 개막

국가무형유산인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상설공연 개막공연이 지난 7월 4일 임실필봉문화촌 대동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 공연은 시대의 변화를 함께 했던 임실 사람들, 임실치즈, 지정환 신부 의 만남을 주제로 가(歌), 무(舞), 악(樂)을 활용한 창작 연희극으로 7월 4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8월 29

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필봉문화촌 대동관 및 산대마당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임실필봉농악이 지닌 공동체적 삶의 정신과 임실치즈에 담긴 지역민의 노동과 이야기를 하나의 서사로 엮어냄으로써 임실만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이 공연 콘텐츠로 구현되었다.

또한, 춤추는 상쇠 공연은 2012년부터 15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되어, 대한민국 대표 K관국 놀이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일본 2개 도시서 선보이는 창극 '춘향'

국립민속극원, 9일 오사카 · 13일 오키나와 순회공연

국립민속극원(원장 김종현)은 주 오사카 한국문화원(원장 김혜수)과 공동으로 오는 7월 9일 일본 국립분리극장과 7월 13일 국립극장 오키나와 대극장에서 창극 '춘향'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하는 '투어링 케이아트(Touring K-Arts)'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 판소리의 본고장인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극원이 오사카와 오키나와를 순회하며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동시대적 매력을 일본 관객에게 소개한다.

특히 오키나와 공연은 주 오사카 한국문화원이 간사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직접 주최하는 첫 문화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그동안 오사카와 간사이를 중심으로 한 한국화를 알려 온 문화원이 오키나와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지역과 지역을 잇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기반을 마련한다.

오키나와 공연에는 일본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인 구미오도리와 류큐무용의 보유자를 비롯해 국립극장 오키나와 예술감독과 일본의 여러 유파에서 활동하는 전통 예술인들이 관람할 예정이다.

오사카 공연에도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이사과 국립분리극장장, 공익재단법인 분리극협회 사무국장 등 일본 전통공연예술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를 계기로 양국 전통예술계의 교류가 확대되고 향후 다양한 협력으



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작 '춘향'은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하나인 '춘향가'를 바탕으로 국립민속극원이 새롭게 제작한 대표 창극이다. 본 작품은 지난 4월 남원에서 초연했으며 익숙한 줄거리의 재현이 아닌 춘향의 시선과 내면에 집중해 사랑과 이별, 기다림과 수난, 재회의 정서를 밀도 있게 그려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배삼식 교수가 대본을,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한승석 교수가 작곡을 맡았으며 연출가 김기두 무대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 '꽃다운 익산시민+대학' 역사·문학 무료 강연

익산시가 무더운 여름 시민들에게 인문학이 주는 위로와 휴식을 선물한다.

익산시는 오는 8월과 15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꽃다운 익산시민+(플러스)대학' 제4강과 제5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역사와 문학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KBS '역사저널 그날', JTBC '차이 나는 클래스', TBN 전북교양방송 '시를 띄우다'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온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와 시인 김정배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오는 8일에는 이익주 교수가 '단종애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삶과 충신들의 절의·희생을 통해 권력과 인간, 역사와 기억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15일에는 김정배 교수가 '시시대,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인



공자는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의 감수성과 공감 능력, 상상력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시 읽기를 통해 삶의 깊이를 넓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연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

